

오피니언

다산포럼

김정남



G20 정상회의가 2010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것과 관련하여 최근 정부중심으로 국격(國格) 논의가 새삼스럽게 일고 있다.

국내 차원에서는 행정안전부가 전국의 간판 5백55만 여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 작업을 벌여 불법광고단속을 강화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G20 글로벌 시민 10대 실천과제'를 발굴하여 관련 공익 광고 제작을 늘린다는 것이다.

누가 국격을 떨어뜨리는가

얼마 전에 열렸던 국가브랜드위원회에서는 국격을 높이기 위해 정부 각 부처가 마련한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되었다고 한다.

지난 12월에 있었던 광화문 광장의 '스노잼' 행사계획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령은 행안부의 간관정비계획은 서민경제가 어려운 만큼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 보라고 지시한 반면, 논란이 많았던 서울시의 '스노잼' 행사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라고 격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돈 주고 광고 내는 홍보는 저 옛날 개발경제시대에 자주 보던 행태에 다름 아니다. 아닌 게 아니라 G20회의를 준비하는 면면들을 볼 때, 우리 사회가 다시 개발경제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성되고 축적된 국가의 진면목과 이미지로서의 국격은 쉽게 무너지거나 훼손되지 않는 특성을 갖는다. 그런 점에서 백범 김구 선생이 일찍이 경제적, 군사적으로 부(富)하고 강(強)한 나라보다는 인의(仁義)로 세계의 모범이 되는 문화 도덕국가가 자신이 원하는 나라라는 가르침은 깊이 경청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은 마케팅 용어로서, 상품 또는 특정회사의 품질, 연혁, 신용에 소비자의 신뢰도와 호감도 등이 교직되어 형성된 구매력 내지 이미지를 말하는 것이다. 브랜드는 회사간 국가간 한시성을 띠 수밖에 없다.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해 넘기는 지역현안 해결에 역량 모으자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도지사 28일 송년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해를 추진했던 역점 사업을 설명하고 내년도 청사진을 밝혔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올해 지역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쳐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다.

역 일부 현안사업의 추진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특히 일부 현안은 지역이나 단체가 제각기 목소리를 높인 반면 이들의 주장을 슬기롭게 조정할 중재 역할이 실종되면서 지역현안이 상당기간 표류하는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삼성전자 광주 투자 파급효과 극대화해야

삼성전자가 정밀금형개발과 관련해 광주시에 1천4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지역경제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국내 정상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역 이미지 개선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남보가 아닐 수 없다.

한 것은 기업도시로서의 지역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한 기아자동차 광주공장과 함께 지역경제의 축인 삼성광주전자의 안정적 발전을 담보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크다 하겠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NGO 칼럼

이춘석



최근 4대강 살리기라는 MB정권의 삽질에 영산강은 지역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에 어느 쪽도 손대기 어려운 '양날의 칼'이 된 듯한 모양새다. 필자는 영산강이 인접한 마을에서 태어나 유년시절부터 청년이 되기까지 15년여 동안 영산강을 보면서 꿈을 키워 왔다.

해주는 사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시화호의 교훈에서도 보듯 우선 써야 하는 강물의 솥물이 트일 수 있도록 하구둑을 개방해 바닷물이 흘러들어오게 하고 자연스럽게 갯벌과 습지가 조성되도록 해주어야 한다.

기고

전완준



정부가 의욕적으로 펼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 마스터플랜은 생명이 깨어나는 강, 새로운 대한민국을 지향한다.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며 지역 균형발전과 녹색성장 기반을 구축, 새로운 국토를 재창조한다는 이념을 담고 있다.

방법론에 있어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국민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광주·전남의 내륙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화순군은 350만 시·도민의 식수원인 동북댐과 주암댐이 자리잡고 있다.

4대강 사업, 영산강은 들러리 인가?

하구둑을 막으면서 아예 솥물이 막혀 버렸던 것. 밀물과 썰물이 교차하며 자연 정화작용을 했던 기능은 하구둑이 건설되며 상실됐다. 지금은 각종 오폐수가 흐르는 3급수도 되지않는 하천으로 변해 버렸다.

같은 특별법 제정이라고 생각한다. 필자의 엉뚱한 소견일 수 있지만 지금이라도 영산강은 4대강 사업과 예산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영산강을 본연의 모습으로 살리고 복원하기 위해서는 7개 시·군에 걸쳐 있는 지역적 특수성과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진행해야 한다.

셋강이 살아야 영산강이 산다

야 아랫물이 맑다'는 뜻이다. 이는 아랫물을 아무리 깨끗이 한들 위에서 더러운 물이 흘러내려오면 소용없음을 의미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영산강 상류지역인 화순군의 화순천과 지석천의 상탁(上濁)을 막는 사업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백년대계 차원에서 설계를 하고 건설키만 11개나 설치했다. 모 밑에는 통수관을 만들어 퇴적물이 쌓이지 않도록 했다. 또 4.5km에 달하는 천변도로에 편백나무를 심어 탐방로를 조성했는가 하면, 주변 야산과 농경지에 야생화와 한약초를 심었다.

10대 성매매 문제, 어른들부터 각성해야

성매매의 뚝으로 이끄는 곳은 다름 아닌 애인대행사이트이다. 심심풀이 삼아 한 여성회원에게 메시지를 보내보면 1분도 안 돼서 전화하겠다는 답장이 날라온다.

다른 3대강 사업과 맞물려 환경영향 평가 및 문화재조사 등, 절차상 과정을 무시한 밀어붙이기의 들러리가 아닌 자연 생태계의 보고로서 영산강은 살려져야 한다. 따라서 민주당은 지역의 눈치를 보지 말고 당당하게 MB 정권의 4대강 삽질에산심의와 사업을 시기에 쫓아고 양날의 칼을 두려워하기보다 민생의 파탄을 생각해 준엄하게 따져 봐야 한다.

국가의 장래를 좌우할 중요한 사업은 더더 가더라도 계획과 기술적인 문제를 치밀하게 검토하는 게 좋을 듯 싶다. 물론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한다. 그러나

◇ 채택된 원고는 고료 드립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無等鼓

최근 우리나라 신문과 방송을 뒤덮은 단어는 단연 '원전(原電)'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아랍에미리트연합(UAE)으로 날아가 총 400억달러(한화 47조 원대) 규모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공사 수주를 확정하면서 관련업계는 축제 무드에 젖었다.

이번 UAE 원전 수주는 대한민국 경제 제도와약의 발판이 될 것으로 평가받는다. 정부는 UAE에 국내 원전을 수출한 데 이어 같은 중동국가인 터키에도 최대 200억 달러 규모의 원전을 수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전(原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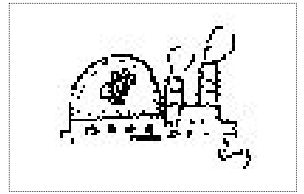


Table with 2 columns: 광 卍 日 報 and The Kwangju Ilbo. Contains contact information, subscription rates, and office details.